

## Dear Beloved Partners,

Thank you from the bottom of our hearts. It was a busy summer for us as we wrapped up ministry in Taiwan and went to the U.S. in June for moves & a wedding. We are sorry that we have not written for over 4 months. As soon as we arrived in Taiwan back from the U.S. at the end of July, Prisca started teacher preparation week and school started a week later. Aquila finished the book of Matthew sermon series at the rehab. Aquila will continue with simple theology and the book of Genesis. We praise God for lives that are changing, have changed, and will be changed for His glory!

Our summer was not restful until the very end. We drove over 7,000 miles, helping Immanuel & Silas move. Immanuel moved from Chicago to New Mexico.(interning as a church videographer) Then we drove to OR to help out with Josiah & Maliah's wedding. It was a beautiful wedding but off-grid and very difficult to get to. Last but not least, drove back to CO and MT. (Silas' request to meet his roommate)

Thankfully, we can stay with Prisca's brother when we go back to America. But with no permanent housing, numerous moves in our lifetime, and a tight budget did not phase us when we were young, but now that we are old, reality hits har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e MUST not forget to fix our eyes on Jesus!

It is Ghost month here and it's that time of year when people offer food, fruits, and paper money to the ghosts. (burning money in big pot-like canisters in front of homes, businesses, and alleys) The logic behind this is for blessing and they are afraid that hungry ghost will do irrational things so they will even offer to ghosts that are not in their family line. Kind of like "homeless ghosts" who may do harm if not fed. With all of this superstition and worshiping and offering to ghosts, the Taiwanese live in fear. Fear of not offering enough and wondering what curse or bad luck may come in the near future. Due to all this superstition and temple worship, Taiwan is very dark spiritually and we ask for prayer that we can be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Praise be to our LORD JESUS CHRIST who offered up His body as a living sacrifice for our sins once and for all. We no longer have to live in fear or keep offering the blood of bulls or goats. We ca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with the blood that Jesus the LAMB of God shed for us. PTL!

Looking back over the last part of summer, we had a chance to visit a few national parks while driving Silas to see his roommate. Silas does not ask for much and when he does ask, we try to listen because he hardly requests or asks for anything. It was nice to spend time in nature even though it was hard on our backs and body due to camping. With rest, we realized we could have offended many by not reaching out or contacting you all this summer. It was due to our lack of judgment and being overwhelmed with so many things on our plate. We were wrong and we are sorry for not calling, writing, or meeting.

Again, we hope and pray that the Korean church will know how to "rest." When we are burned out, we do not respond in a healthy manner but want to avoid any form of confrontation/communication, even if it is positive because we are running on empty and have nothing left in our emotional banks to give.

**Resting in Jesus,**

**Aquila, Prisca, 4 young men 8/24/2024**

##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대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6월에 이사 및 결혼식을 위해 미국으로 가느라 바쁜 여름을 보냈습니다. 4개월 넘게 글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7월 말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브리스길라는 수업준비를 학교에서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 개학했습니다. 아굴라는 중독 재활원에서 마태복음 설교 시리즈를 마쳤고 기초 신학과 창세기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되었고, 변화될 형제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여름은 마지막까지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는 주함이와 주영이를 돕기 위해 7,000 마일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주함이는 시카고에서 뉴멕시코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비디오 그래퍼 인턴으로 일하 위해.) 그리고 저희는 주성 & 말라야의 결혼식을 돕기 위해 OR으로 운전해갔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지만 외지(off-rid)이어서 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CO와 MT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룸메이트를 만나고 싶다는 주영이의 요청) 다행히 미국으로 가면 브리스길라의 오빠의 집에 머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주거지가 없고, 평생 동안 수차례의 이사, 빠듯한 예산으로 인해 젊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든 지금 현실의 몽둥이가 저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귀신의 달이고 사람들이 귀신에게 음식, 과일, 지폐를 바치는 시기입니다. (집, 회사, 골목길 앞에서 큰 냄비 같은 통에 돈을 태우는 것) 그 이면의 논리는 축복을 위한 것이며, 배고픈 귀신이 비이성적인 일을 할까 봐 두려워서 친척이 아닌 귀신에게도 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해를 끼칠 수 있는 '귀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과 귀신 숭배와 공양으로 대만인들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공양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면 저주나 불운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과 사원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대만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데, 저희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거나 황소나 염소의 피를 계속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힘입어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여름을 돌이켜보면, 주영이와 함께 룸메이트를 만나러 가는 동안 저희는 국립공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영이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에는 그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는 캠핑 하느라고 허리와 몸은 힘들었지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쉼을 취하면서 이번 여름 내내 연락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불쾌감을 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판단력 부족과 많은 일들로 인해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잘못했고 전화, 편지, 만남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쉼"을 누릴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진(burn-out)될 때, 우리는 건강한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행"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소통과 만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4 명의 청년 8/24/2024**